

도란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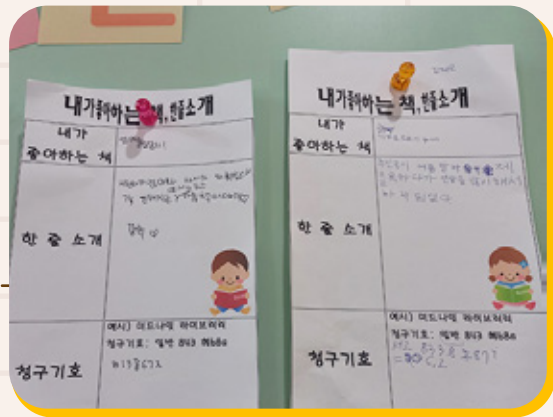
꿈바당

9월호에는 꿈바당을 찾아온 친구들이 직접

"내가 좋아하는 책, 한 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책들을 좋아할까요?? 나와 취향이 비슷한 친구가 있나요??

무슨 책을 읽어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친구가 소개하는 책을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호호를 위해
이상한 엄마는
멋있는 방법을
해주고 있어요

책 제목: 이상한엄마
청구기호: 빅북 813백970

눈호랑이가
눅아서 팔빙수
가 돼요

책 제목: 팔빙수의전설
청구기호: 유아 813이78 프

내가 싫은 사람이 나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 알사탕
청구기호: 빅북 813백970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느낌이에요 ~
정말로 꿈의 자동차가
현실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책 제목: 꿈의 자동차
청구기호: 유아 813 허62거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에
등에 지구환경에
저장이 있었던 날을
모아둔 책이다.
환경에 관심있는
친들에게 인성
맞춤이다.

책 제목: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청구기호: 청소년 539.9-최66드

책을 읽으면서 영혼을 볼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주는 소설이다.
책속에 액자소설도 재미있다.
'오,선장님, 나의 선장님'이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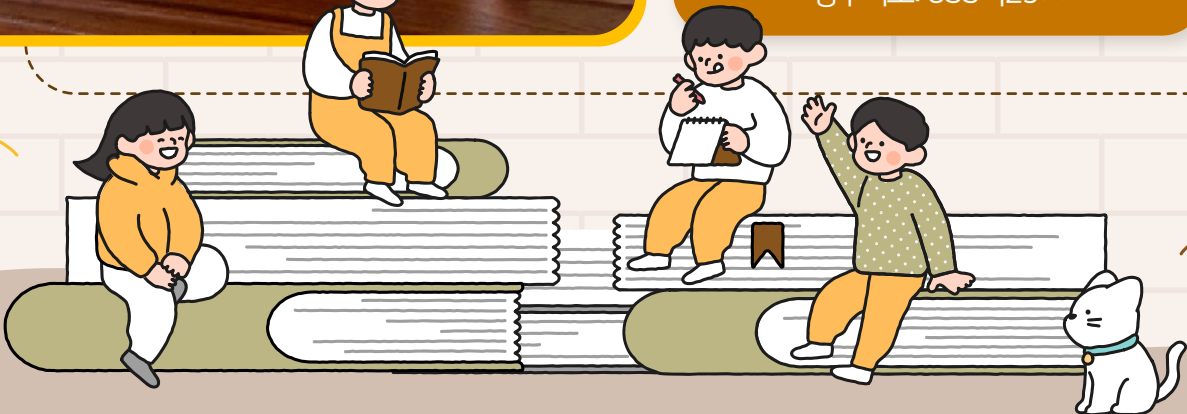
책 제목: 죽은 시인의 사회
청구기호: 일반 843.6-클29즈

도자기 인형인
에드워드 틀레인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책.

책 제목: 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기한 여행
청구기호: 843디870

행운의 손님들께 원하는 과자
를 파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
다 보면 계속 빨려들어가는 책
입니다.

책 제목: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시리즈
청구기호: 833히29즈



할머니의 콩탕

김남권



내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콩탕이다.

할머니만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에 쪽진 머리가 떠오른다. 서너 살 무렵부터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엄마의 자리에 늘 주인공으로 남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내가 어느덧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는 시그니처이다. 한 겨울 눈 쌓인 산으로 땀나무를 하러 갈 때도, 부뚜막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할 때도 동네 잔치에 불려가실 때에도, 내가 객지 생활을 하느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만 찾으면 되었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동네의 큰 잔치가 있거나 굿을 하거나 할 때마다 불려가서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음식을 챙겨오실 때가 많았다. 그런 날은 생일보다 더 푸짐하게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겨울이면 꼭 김치만두를 빚어서 출출한 속을 달래주었고, 보리개떡과 술빵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밀가루 반죽으로 칼국수를 밀어서 호박 넣고 감자 넣고 맹물에 끓여주시던 칼국수 맛은 화려한 육수로 만들어 내놓는 요즘 칼국수 맛보다 훨씬 더 깊은 맛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할머니의 콩탕이다. 한 겨울만 되면 메주콩을 불려 놓고 할머니 손에 내 손을 포개어 맷돌에서 콩을 갈면 새하얗게 함지박 속으로 흘러내리던 콩물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그렇게 해마다 겨울이 오면 가마솥에서 끓여주시던 콩탕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십 여년이 흐르는 동안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유일무이한 음식이 되었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나는 콩을 갈아서 김치만 넣고 가마솥에서 푹 끓인 콩탕을 조선간장에 파와 마늘 달래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은 양념장을 만들어 대접에 한 가득 담아 준 콩탕 한 그릇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콩탕 한 그릇을 게눈 감추듯 먹어 치우는 손주 모습을 보시려고 할머니는 겨울이 다 지나도록 몇 번이고 번거로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콩탕을 하는 날이면 가난한 살림에도 꼭 이웃집으로 콩탕 배달 심부름을 시키셨고 덕분에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대신 받았었다.

쌀보다 콩이 더 흔했던 시절, 한 겨울에만 먹을 수 있었던 할머니의 콩탕은 일흔이 넘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먹지 못했고 길거리 식당 어디에서도 콩탕 메뉴를 발견하지 못했다. 콩탕은 비지찌개와 달라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콩을 맷돌에 갈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콩 본연의 고소하고 깊은 맛이 살아 있는

원초적인 음식이다. 요즘처럼 믹서기에 곱게 갈지 않고 맷돌의 마찰로 자연스럽게 갈아내어 조금은 거친 입자가 김치와 함께 씹히는 그 맛은 고소하고 감미롭고 슬기로운 맛이었다.

장지문 밖으로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방안으로 들어오면 콩탕의 맛은 더 뜨겁고 구수하면서도 웅숭그러운 맛이 더해져 콩탕에서 할머니의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장작불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의 달달한 맛이 소고기 국물 것처럼 우려날 때도 있었다. 콩탕이 가마솥에서 끓어 넘치기만 기다리며 부엌을 향한 쪽문으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던 나에게 할머니는 “찬바람 들어간다, 문 닫아라” 하시면서도 빙그레 웃는 웃음으로 손자에 대한 애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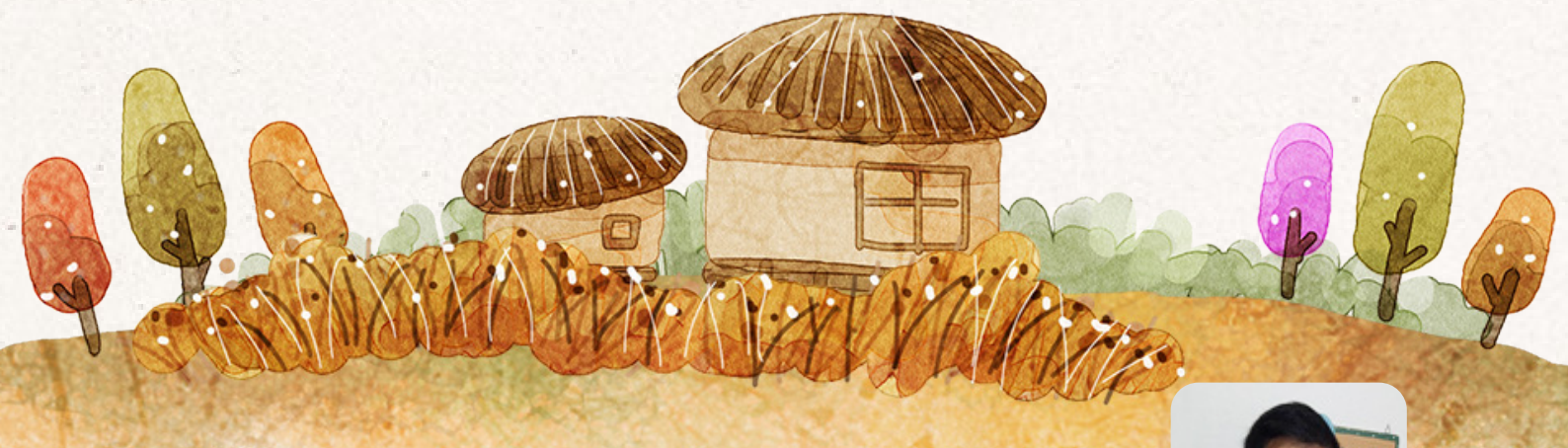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얼마 후 아버지마저 집을 나간 텅 빈 집에서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할머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객지로 떠돌기 시작하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혼자서 십 여 년을 말동무도 없이 지내시다가 결국 치매에 걸려 계모와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가 모시고 가서 병 수발을 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나는 방향을 끝내지 못했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집에 자주 들르지도 못했고, 계모와의 불편한 관계도 나를 밖으로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몇 년에 한번 꼴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다.

할머니의 치매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무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살아 보겠다고 객지로 객지로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급기야는 할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뒤늦게 무덤가에 가서 눈물로 용서를 빌어야 했다.

이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할머니의 맛,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와 더불어 내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마지막 음식이 되었다.

어린 시절 내내 눈만 뜨면 보았던 할머니의 하얀 무명 치마저고리와 새하얀 콩탕은 내 머릿속에 너무 강렬한 빛깔로 남아 있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도 하얀 나비만 보면 할머니 모습이 저절로 생각이 났다. 해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꽃들 사이로 하얀 나비만 날아다니면 나는 어릴 적 할머니날 만난 듯 반갑고 기뻐서 한참을 바라보고 나비가 날아가는 방향을 따라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지켜보곤 한다. 어쩌면 이런 할머니의 친환경 식습관 때문에 내가 평생 고기도 생선도 못 먹는 비건으로 살게 된 건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다. 고기보다 생선보다 더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나를 키우신 할머니 덕분에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만약 하느님이 허락해서 할머니가 다시 엄마 자리로 이 세상에 단 하루라도 소풍을 오신다면 나는 꼭 어릴 적 화전민촌 오막살이 집에서 먹었던 콩탕을 해달라고 때를 써 볼 작정이다.



김남권

시를 쓰시는 김남권 작가님은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하셨고, 이에도문학상 대상 수상, KBS창작동요대회 노랫말 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또 시집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외 다수, 동시집으로는 '엄마는 마법사' 외 다수를 쓰셨습니다.



꿈의장사서 추천도서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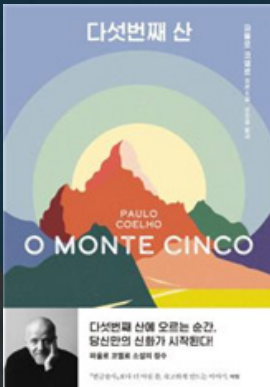
루리 글·그림
비룡소/2022
유아813-루29ㄱ (신간 그림책방)



그림형제의 「브레멘 음악대」를 현대를 배경으로 재구성해 본 그림책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후회하는 동물들과 열심히 살지 않아서 후회하는 도둑들의 만남,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를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하면서 절망에서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번째 산

파울로 코엘료 지음; 오진영 옮김
문학동네 2022
일반879-코64ㄷ (신간 꿈지람책방)



“만족스럽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지금은 당장 잊어버려요. 당신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그대로 믿어봐요. 원하던 것을 성취한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줄 겁니다.”(p. 250)

엘리아가 파괴된 도시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고 헤맬 때, 양치기는 엘리아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이 책 또한 절망과 희망이 만나는 순간을,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자신에게 닥쳤던 고난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는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언자 엘리아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엘리아의 이야기는 단지 신앙과 믿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엘리아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 엘리아가 겪게 되는 변화의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시련”과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월 프로그램

여름방학을 맞은 친구들이 8월에도 꿈비당 프로그램에 재미있게!! 즐겁게!! 참여해주었어요 ^^



꼬마작가의 연필 - 메타버스 타고 떠나는 미래여행

대상 초등 1~2학년(16명) **기간** 8월 7일~28일(일), 10:30~12:00



꼬마작가의 노트 - 메타버스 타고 떠나는 미래여행

대상 초등 3~4학년(16명) **기간** 8월 6일~27일(토), 10:3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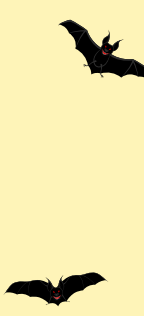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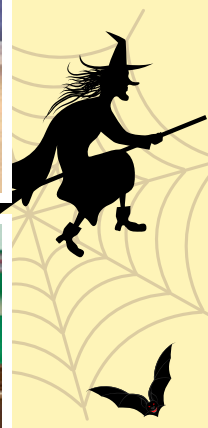




오스스
도캉스 1, 2

대상 | 초등 2~3학년(20명) / 초등 4~5학년(20명) 기간 | 8월 9일(화) 10:00~17:00 / 8월 16일(화) 10: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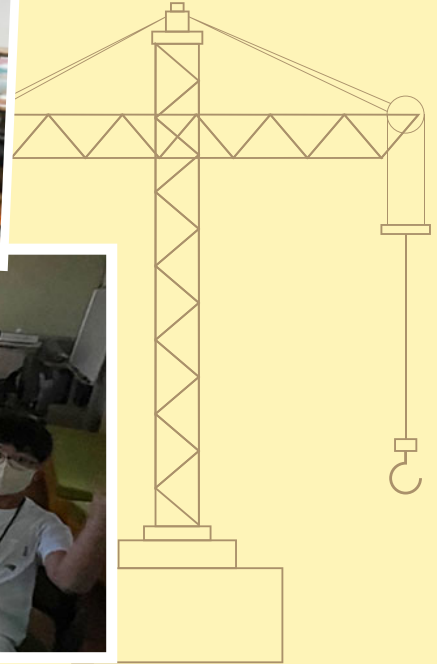
무서운 그림책, 빛그림, 무서운 공간체험 등을 통해
오싹한 활동을 하면서 용기 있는 나를 발견하고 여름의 무더위 잊기



꿈바당 건축교실

대상 | 초등 3~4학년(20명) 기간 | 8월 3~5일(수, 목, 금), 10:00~12:00

세계적인 건축가안도 다다오의 그림책을 읽고 나만의 멋진 건축물 만들기



제주에 살아요

대상 | 초등 1~2학년(20명) 기간 | 8월 3~5일(수, 목, 금), 14:00~16:00

제주 지역과 지명을 알아보고 그림책과 동시 등을 통해 제주 문화 이해하기



꿈바탕 과학교실

여기는 신비한 물질 연구소

대상 | 초등 2~3학년(16명) 기간 | 8월 11~13일(목, 금, 토), 10:00~12:00

오호불 만들기, 친환경 물병 만들기,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아이스팩 만들기 등
자기주도적인 실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여기는 지구 지킴이 연구소

대상 | 초등 4~6학년(16명) 기간 | 8월 11~13일(목, 금, 토), 14:00~16:00

발포정을 이용한 로켓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태양광 발전기 만들기 등
자기주도적인 실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2022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여름방학을 맞은 친구들을 만나러 꿈바당도 여러분을 만나러 신나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즐거웠던 만큼 짧게만 느껴진 방학처럼, 끝나는 프로그램에 다들 아쉬움이 컸어요.
신나는 표정 한가득이던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12개 주제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보드게임으로 떠나는 여행



저마다 제 색깔



꿈 찾아 떠나는 여행



일상다반짝



독서 동아리

성인 동아리 2개팀과 초등 동아리 2개팀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



예촌작은도서관

책놀이 꾸러미 프로그램

'환경'을 주제로한 도서와 책놀이 꾸러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7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합니다.



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위미지역아동센터



보목지역아동센터



동신타이디온지역아동센터



이호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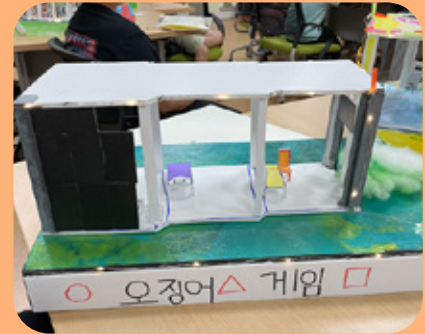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동화책을 읽고
상상력을 발휘해 나만의 멋진 건축물 만들기
활동을 즐겁게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의 작품들을 만나보아요~



참여친구

강유준, 고서준, 김서준, 김승운, 김주환, 양준영,
양효지, 오하율, 유민재, 이승규, 이승아, 이은서,
이재희, 이지호, 임민재, 장예담, 장지호,
최서윤, 하윤빈, 허승빈





함께같이 도서관



9월호 '함께같이도서관'의 주인공은 바로 **봉아름작은도서관**입니다.
제주시 번영로에 위치한 봉아름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책을 읽고
소통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문화사랑방인데요~
봉아름작은도서관의 공간 속으로 훌쩍 가을여행을 떠나볼게요~

책 속에 편백향이 진하게 스며

조선희

오랜만에 쾌적한 바람이 분다. 연일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쳐 어찌 할바를 모르는데 단비가 내렸다.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난 후 잠시나마 선선한 바람이 거리를 매운 날 추재차 봉개에 있는 봉아름작은도서관을 찾았다.

초등학교 저학년때 즈음으로 기억한다.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없던 시절이었다. 내용도 제목도 기억나는 건 없는데 책을 다 읽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친구들은 아무도 없고 서쪽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유년의 한 자락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향해 걷는 발걸음은 두근거렸다. 두 그루의 아름드리나무가 입구에서 나를 반긴다. 봉개동 주민들의 심성을 대변하듯 풍성하게 그늘을 드리운 모습은 희로애락의 모든 사연들을 다 품고 어루만져 줄 것만 같다.

마침 봉개초등학교 맞은편에 자리해 있어 찾기가 쉬웠다.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수월하겠다 싶은 생각에 다행으로 여겨진다. 이미 갓가에는 도서관을 향해 재잘거리며 걸어오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편백나무 향이 훅 내게로 들어온다. 책을 읽는 내내 맑은 머릿속으로 속속 잘 들어 올 것 같다. 아이들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계단식 책장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구석구석 수강생들의 사회전과 캘리그래피 작품이 전시된 걸 보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봉아름작은도서관은 봉개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책임질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도서관 입구에 놓여진 봉개신문은 바쁜 주민들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웃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 마을에서 한달살이 혹은 일년살이 하며 머물고 있는 외지인에게는 도서관 대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를 알고 이해하도록 돕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봉개동 주민센터는 신축하여 이전한 후 1층은 회의실, 2층은 새마을 문고로 운영하다가 봉개동 마을회의에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사업 공모 결과 작은도서관으로 운용하자는 의견이 모여져 2015년 5월 봉아름작은도서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7년 1월 11일 도서관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이라고 한다. 도서대출 및 다양한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봉아름작은도서관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가고 있는 변경미 사서는 이야기 한다.

연령에 맞추어 동네 어린이집과 유아 문화예술사업으로 협약을 맺어 책과 친할 수 있게 어린이집에서 뛰어노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저학년은 그림책 읽기, 고학년은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용강, 명도암, 동회천, 서회천, 봉개 마을탐사를 통해 돌담의 역할과 제주의 옛 모습을 돌아보며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한다. 아쉬움을 내비치는 변경미 사서의 표정에서 진심으로 봉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롯하게 느껴진다.

누군가 나에게 고향에 대해 물었던 일이 있다. 그때마다 난 비자림과 구좌당근을 빼놓지 않고 자랑하는데 그것 말고는 달리 고향 마을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레 부끄러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우리 마을과 인근 마을탐사를 하며 역사를 배우고 눈으로 보며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환경을 접한다면 나중에 커서라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애뜻해지지 않을까 싶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몇 해 전까지 작은마을도서관이 있었다. 배움에 열의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서예 수업도 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자기 만들기와 시인을 초청해 시 창작 수업도 했다. 부지런한 관장의 권유로 가끔 참여했었는데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관되고 말았다. 가끔 책을 대여하기 위해 관리실로 향하던 발걸음이 쓸쓸하다.

봉아름작은도서관 역시 주민들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하지만 신청률이 저조해 힘들 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방이자 쉼터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바람이 선선해지는 구월에 정창일 시인의 시창작 강연에 수강생으로 등록해야지 싶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시심도 익어가리라 기대하며 부러운 마음 가득 안고 문을 나선다.

“누구라도 이 자리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뿌리 깊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변경미 사서의 간절한 바람을 소리 내어 읽었는지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나무들이 윤진 이파리를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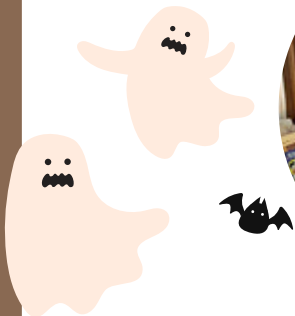
슬기로운 도서관 생활



꿈마당 여름캠프 으스스 도캉스 1,2

신나는 여름 방학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이 여름을 시원~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쌓고자 스스로(?) 으스스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도 읽고, 서로 무서운 이야기기도 나누고!!
짝을 이뤄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으스스한 어둠 속을 헤매고 뒤흔치기도 했지요 ^^

"아 깜짝아!!!!" 도서관에서는 귀신도 만났드랬어요~~



서~늘한 여름을 보낸 우리 친구들! 그만큼 담력도 커지고 용기도 갖게 된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



학부모독서회 동아리 발대식

8월 10일, 상반기학부모독서회를 수료한 학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여 '꿈마당학부모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도서정리 및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단체 견학 오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해주신다고 하니, 견학신청 시 미리 신청해주세요~^^
꿈마당학부모동아리 활동가님들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 개원소식

제주꿈비당어린이도서관의 운영기관인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시 서사로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뜨거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아~~

해가 짧아진 요즘입니다. 도서관 문을 닫기 전에
정원을 둘러보면 선선한 바람이 제법 상쾌합니다.
도서관 정원, 놀이터 곳곳에서도
쉬어가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가을이 오고 있나봅니다.
도서관 뒤뜰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귀를 간지럽히는 귀뚜라미 소리 대신
정원수마다 가을이 오는 소식을 담아보았습니다.



9월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과 전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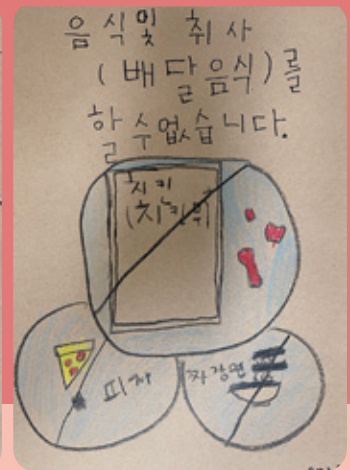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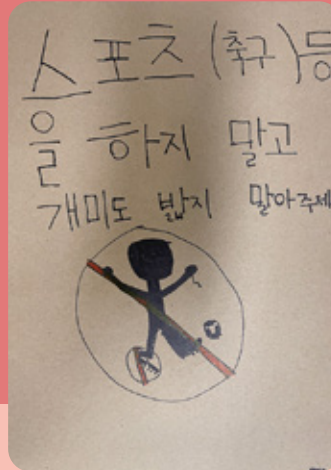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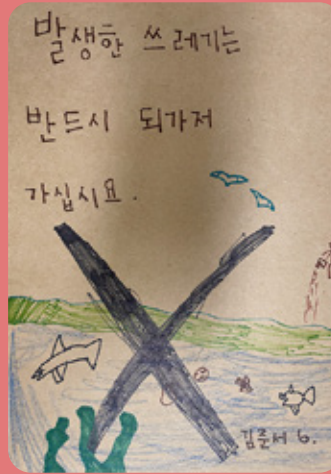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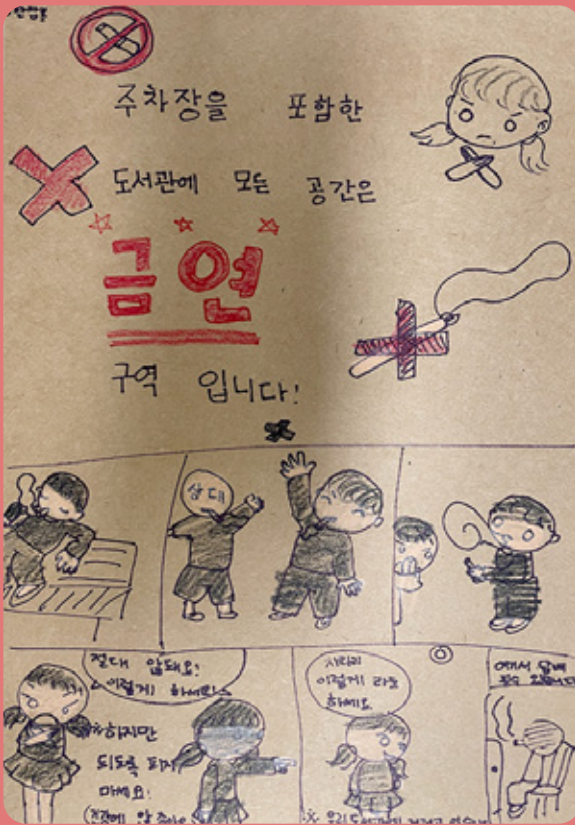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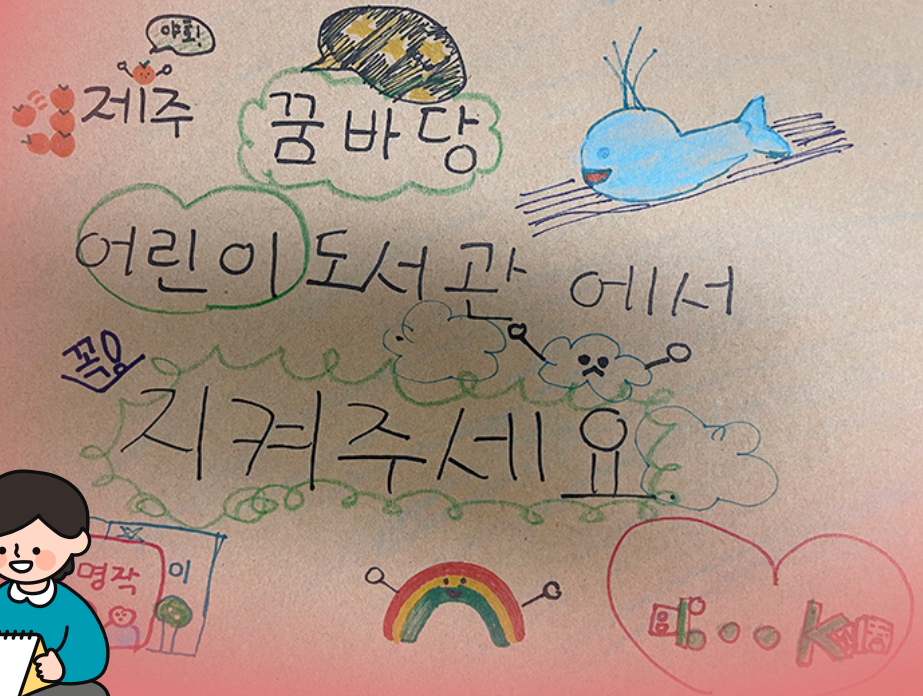
9월에는 '시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관련된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짧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또 어린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펼쳐지는 노래
속으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아요~

또 9월 5일부터 '고마시인의 하루' 원화 전시와
'어린이는 모두 시인입니다' 기획전시가 함께
진행됩니다.



꿈바당에서 지켜야 할 일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꿈바당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배려와 질서있는 꿈바당 이용자들이 되어봅시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알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10월15일(토요일) 개관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에요~
꿈바당 생일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